

고무줄 선거인단에 명부 유출 의혹까지

“한 집서 7명까지... 불법 선거인단 구성” 민주당 경선 반발... 일부 법정소송까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1개월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 ‘경선 불복’이라는 악재에 부딪혔다. 광역·기초 단체장에서 지방(광역·기초)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는 ‘재심 신청’은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민주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탈락자들은 당선인 결정 효력까지 가쳐분 신청 등 법적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예전에는 심심치 않게 있었던 ‘아름다운 승복’은 손에 꼽을 정도다.

◇선거인단 구성 불법 의혹=광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재심 청구자들은 대부분 선거인단 선거과정의 불법과 선거인단 명부 사전 유출을 문제삼고 있다. 이는 경선무효를 담당하는 광주시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점’을 보이며 ‘불복’의 발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에서 시의원 경선에 참여했다 탈락한 양혜령 예비후보 등 7명의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동일한 집에서 최소한 2명 이상, 많게는 4명까지 선거인단으로 선정되는 등 수십 여명의 불법 선거인단이 구성된 의혹이 있다”며 경선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서구 선거구 지방의원 경선 탈락자들 1인이 2번 투표하고, 주소 한 곳에 7명까지 당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인단 갑작스런 증원=양혜령 예비후보 등은 또 선거인단 수가 예초 450명에서 567명으로 갑자기 증가한데다 선거인 명부

유출 의혹까지 있다며 이번 경선은 원천 무효인 만큼 무공천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 지방의원 경선 탈락자들도 당원 선거인단 명부 사전 유출과 당원 선거인단인 예초 700명에서 47명이 추가로 늘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대의원 명단을 추가로 늘리면서 후보들에게 통보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당은 “대의원은 선거인단에 포함되도록 돼 있다”면서 “원래 누락됐던 대의원을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끄럽지 못한 경선 관리가 초래한 결과다.

◇법정 소송까지=양혜령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지법에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검찰수사를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참여한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도 서울 남부지법에 (경선)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미 심리도 한번 열린 상태이며, 이번 주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나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강인규 예

비후보도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당의 재심도 못 믿고 법원을 찾는 후보들도 늘고 있다. “끝까지 가 보자”는 정치권 특유의 ‘불복 문화’가 ‘법의 정치 개입’까지 불러오는 셈이다.

이처럼 낙천자들이 법원까지 가는 까닭은 경선과정에서의 공천 제도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 절차를 제도화하지 않고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맞춰 지역마다 공천 방식을 달리하고, 당 지도부의 판단이 일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대표와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박주선 최고위원이 천안함 순국 장병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비주류 전투태세

“당권과 편파 공천·경선파행 책임져야” ‘쇄신 모임’ 내일 당무회의 앞 전열 정비

들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한나라당마저도 4명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TV 토론을 하며 자유로운 경선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선홍행을 위해 5월3일로 시장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 공천과정과 빗대어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28일 당무회의에서 전남·북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토록 의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당무회의 당일 참석인원 점검과 회의 대처 방안, 발언 내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비주류 측이 ‘적절분열’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류 측을 전면 공격하고 나서는

것은 공천 과정에서 당권파가 무원칙하고 편파적인 공천으로 주류 측 인사 심기에 나서면서 비주류 인사들이 ‘전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서울시장)를 비롯, 김진표(경기지사) 송영길(인천시장), 안희정 최고위원(충남지사), 이광재 의원(강원지사) 등 친노·386인사들이 후보로 확정되거나 유력시되고 있다.

또 전남·북지사 후보로 사실상 낙점된 박준영, 김완주 현 지사도 정세균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더욱이 전남·북 경선이 후보 간 경선을 갈등으로 잇따라 무산됐고 서울시장 경선도 TV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6·2 지방선거 광주·전남 경선 불복현황 (4월26일 현재)

후보 선거구	경선방식	당선자	탈락자 불복내용	처리상황
광주광역시시장	당원여론조사 50% 시민배심원 50%	강은태	이용섭 정동채 법원 효력정지기처분신청	중앙당 재심신청 재판부에 기각요청
전남도지사	경선불발	박준영	주승용 이석형	당무위에 경선 요구 28일 당무위 논의
광주남구청장	시민배심원제	최영호	김영집 정재훈 김화진	중앙당 재심 신청
여수시장	당원여론조사 50% 시민배심원 50%	오현섭	김강식	중앙당 재심신청
광양시장	당원여론조사 50% 주민여론조사 50%	서중식	정현복	중앙당 재심신청
나주시장	당원여론조사 50% 주민여론조사 50%	임성훈	강인규 중앙당 재심신청-기각, 당선인 무효소송	
진도군수	당원여론조사 50% 주민여론조사 50%	이동진	김경부	중앙당 재심신청
담양군수	당원여론조사 50% 주민여론조사 50%	최형식	유창중	중앙당 재심신청 기각
구례군수	당원여론조사 50% 주민여론조사 50%	서기동	박인환	중앙당 재심신청 기각
영암군수	당원여론조사 50% 주민여론조사 50%	김일태	전동명	중앙당 재심신청 기각
함평군수	경선불발		안병호 단독후보 발표에 김성호 반발, 중앙당 최고위 회부	
광주시의원(동구)	당원투표	김영우 손재홍	양혜령 임병춘 나광석	광주시당 재심신청
광주시의원(서구)	당원투표	이춘문 김보현 김성현	송재선(경선불발) 영동의 박상순 이재인 이상록	광주시당 재심신청 중앙당 동시 재심요청
광주기초의원(동구)	당원투표	남순심 등 7명	배용태 조영조 양재영 나윤학	광주시당 재심신청
광주기초의원(서구)	당원투표	오광교 등 3명	박선동	광주시당 재심신청
전남도의원(목포)	당원여론조사 50% 주민여론조사 50%	김성희 권 옥 김 탁	황철호 전금숙 김준형	전남도당 재심신청
전남도의원(여수)	당원여론조사 50% 주민여론조사 50%	서현곤 최철훈	최종선 서일용	전남도당 재심신청

※ 전남 각 시·군 기초의원 경선 탈락자 12명 전남도당 재심신청

민주당 전남도의원 후보

민주 전남도의원 후보

61% 물갈이

48명 확정... 현역의원 16명

민주당 전남도의원 후보들이 순천 4개 선거구와 무안 1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확정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그동안 경선을 통해 전남도의원 후보 51명 중 48명을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명의 현역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순천지역 박홍수 의원과 이홍재 의원, 무소속 나종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정우태 의원이 선전해 도의회에 입성할 경우 51명 중 최대 20명(39%)이 생환, 물갈이 최소 비율은 61%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선에서 민주당 공천자가 무소속 등에 패할 경우 물갈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역 선거구	후보자	지역 선거구	후보자	
목포	1 강성희	담양	1 박철홍	
	2 권옥	2 김동주		
	3 이호준(현역)	무안	1 미정	
	4 김탁	2 정영덕		
	여수	1 이광일	보성	1 황병순(현역)
		2 송대수(현역)	2 임명규	
3 성해석		신안	1 임흥빈(현역)	
4 정빈근		2 박종기		
5 서현곤		영광	1 이동권(현역)	
6 최철훈		2 이장석		
순천	1 미정	영암	1 손대일	
	2 미정	2 강우석(현역)		
	3 서동욱	원도	1 서정향	
	4 미정	2 송주호(현역)		
	5 미정	정성	1 윤시석(현역)	
광양	1 이용재	2 김한중		
	2 서욱기	장흥	1 김창남(현역)	
	3 김재우(현역)	2 김광준		
나주	1 이기병(현역)	진도	장일(현역)	
	2 김욱기	함평	1 이윤행	
강진	1 신영호	2 노종석		
	2 윤도현	해남	1 명현관	
고흥	1 송형곤	2 김홍남		
	2 함재규	회소	1 구종근(현역)	
곡성	정환대(현역)	2 홍이석(현역)		
	고택운(현역)			

성공창업!

베트남쌀국수 전문점

후아비

전국 100여개 매장운영!

1588-5291

www.bibingijjim.com